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텝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탈출기 16,2-4.12-15

화답송



(후렴)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물을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에페소 4,17.20-24

복음환호송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 요한 6,24-35

성가 | 입당성가 [18] 1,2

예물준비 [218]

영성체 [166]

파견 [19]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원근자 체칠리아	방상옥베드로 아하나체칠리아
조차영 마리아	이승민 베로니카의 뉴욕유족
박현진 스테파노	박알버트
박현진 스테파노	이성수 미카엘
이창희 필립보	박알버트
정일환 도미니코	정민영 글라라
생미사	봉헌
김도윤	유리타
유경숙 린타	김래현 마리아
윤숙경 마리아 영육건강	윤루시아
대녀들 영육건강	이은경 헬렌
강혜숙 비올라	익명
성가대바이올린 연주자 방상옥베드로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8월 4일	장혜윤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유정옥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8월 11일	정유진	송명근	민재인	민재인	김종선	김실비아 이우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목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08,110단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8.1 알폰소 8.3 리디아 8.4 요한마리아비안네 8.8 도미니코
- 8.10 라우렌시오 8.11 클라라, 수산나 8.14 막시밀리아노 콜베
- 8.15 성모님관련 세례명 8.18 헬레나 8.20 베르나르도
- 8.21 비오교황 8.23 로사 8.24 바르톨로메오 8.25 루도비코
- 8.27 모니카 8.28 아우구스티노 8.29 사비나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2024 맨하탄 성당 청년 여름캠프



일시: 8/23(금)~8/25(일)
장소: Bloomingburg, NY12721
참가비:\$220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와 바비큐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4년 10/12(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 주일 오전 11시/교육관 3A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성당에서 일할 직원모집

미국본당 수도원장님 요청으로 성당에서 일할 직원 구합니다.
영어 가능자, 물건 운반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주 30시간 근무. 미국본당 수도원장 신부님과 면담후 결정됩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 안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소매없는 옷, 슬리퍼에 맨발, 심한노출은 삼가바랍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미동북부 레지오 마리아에 봉쇄교육

일시: 2024 9/27(금)5pm~29(일)(2박3일), 뉴튼수도원
참가비: 300불 신청: 윤루시아 꾸리아단장 347-633-3767

▶주님과 함께 가족여행 떠나기(제안)

1.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

-가족이 모여 원하는 여행지나 함께하고싶은 것에 대해 말하고 여행 목적, 장소를 함께 정할수 있다.

2. 여행지로 출발할 때

-주모경이나 짧은자유기도로 여행의기대와 안전을 위해기도
-각자가 이번 여행의 기대를 말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도록 서로 돕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

3. 여행중에

-여행지부근 성당/성지에 방문하여 미사참례, 성체조배를한다.
-여행 마지막 날 밤에는 맛있는 음식, 분위기속에 좀더 특별한 나눔의 기회를 갖는다. 여행중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 해도 되고, 가족 간 미처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는것도 좋다. 나눔후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지.

4.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이번 여행통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눈다. -이번 여행의 추억을 함께만든 서로에게 돌아가며 감사인사를 하고, 이모든 시간을 마련해주신 주님께감사한다.

▶여행 중 미국내 성당 찾기

여행중에 주일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을 꼭 만납니다!
call: 1-800-MassTIMES/1-627-7846
<https://masstimes.org/>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감실 (龕室, tabernaculum)

어느 성당이든 제단 앞쪽에는 작은 빛을 내는 감실등이 켜져 있습니다. 성체의 현존을 표시하기 위해 켜 둔 등불인데,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그 옆 감실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미사 후에도 성체를 따로 모셔두는 건 그리스도교의 매우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노(160~?)에 의하면, 박해 시대 때 교우들은 성체를 집에 모셔가 필요할 때 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 암브로시오(339~397)는 항해자들이 위급 시 영성체를 못 하고 죽을까 봐 성체를 모신 함을 가지고 승선하였다고 전합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는 임종 위험에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성체를 영해야 하고 사제가 없을 땐 부제가 영해줄 수 있도록 규정함(13-14항)으로써 성체를 모셔두는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성당 안에 모시는 관습은 4~5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체는 이동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제의실 역할을 하던 '성구실'(聖具室, sacrestia)이나 제단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 후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안전을 위해 열쇠로 잠가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6세기에는 감실을 성당 중앙 제단의 위쪽에 두는 게 일반화되었고, 1863년 예부성(Congregation of Rites)은 이외의 모든 방식을 금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명동대성당이나 주교좌 의정부 사적지 성당에는, 신자를 등지고 미사를 드리던 뒷제대의 정면 위편에 감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는 “각 성당의 구조와 적법한 지역 풍습을 고려하여 성당의 한 부분에 감실을” 두라고 규정합니다. “감실은 보통 불박이로…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불투명 재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모독 될 위험이 결코 없도록 닫아 두어야”(314항) 합니다. 한편, “표지라는 뜻에서 볼 때 미사가 거행되는 제대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을 두지 않는 게 더 맞다.”(315항)라고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성당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현재화되는 ‘제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실은 제대의 중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고귀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미사 후 성체를 모셔두는 목적은 ① 병자들에게 성체를 영해주고, ② 미사 외에도 성체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흠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감실에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개방되어야 합니다(교회법 937조). 또한 매년 적당한 기간에는 비록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가 거행되도록 권장됩니다(942조).

구약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듯이, 오늘날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실은 주님의 현존과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게 하는 길이 되어 줍니다.